

SK-대주화학, 환경기술 연구 박차!

환경부, 차세대 개발사업 289개 확정 ... 2010년까지 1조원 투자 목표

정부가 2003년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과제 289개를 확정하고 정부지원금 656억원을 투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산업(ET)을 전자(IT)·생명(BT)·나노(NT) 분야 등과 함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10년 선진 5개국의 기술 수준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201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500억원, 2002년 700억원을 각각 지원한 데 이어 2003년에는 7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2003년 지원과제에는 환경규제 기준을 달성하고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키 위한 실용화·상용화 기술로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를 개발하기 위한 대주정밀화학의 <자동차용 고효율 De-Nox 촉매 시스템 상용화기술> ▷2004년 7월부터 강화되는 정수탁도 처리기준(0.3NTU) 달성을 위한 시온텍의 <기능성 섬유사 여과방식을 이용한 고효율 정수시스템> ▷난연성·비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이앤이의 <브라운 가스를 이용한 난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 일체형 고온소각-용융처리 시스템> 등이 수행된다.

또 공공 환경정책의 수행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소음과 특성 및 환경소음 예측 모델 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비소계 목재 방부제(CCA)의 통합적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등이 있다.

선진기술 도입·접목을 위한 국제공동(위탁) 연구과제로는 미국 Purdue 대학과 에코솔루션이 공동 개발하는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지원한다.

한편, 2003년부터는 차세대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증사업화 과제 5개가 지원된다.

실증사업화 주요과제(2003)

구 분	사업내용	연구기관
ULSD(Ultra Low Sulfate Diesel) 공정개발	탈황 방해물질을 제거하는 저유황경유 생산공정기술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저유황경유 생산	SK R&D센터
Bioconversion에 의한 친환경 유기 배양토 제조와 탈취, 여액 처리 등 통합면역활성 미생물 제제 생산기술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침출수·여액 등 처리를 완전 자동화하고 유기배양토 제조와 미생물제제의 생산시설 실규모 상용화	디프러스 부설연구소
에코 디자인 프로그램(Instep-DFE) 현장적용을 위한 확장 설계	LCA(전과정 평가), 환경회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	에코프론티어

환경부는 연구개발 과제 지원과 아울러 차세대사업 1단계가 2003년 종료됨에 따라 추진과제의 특성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2단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분야 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한 <차세대사업 2단계 연구기획>을 실시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4>